

한형조 무문관 탐방

9 세존의 꽃

世尊昔在，靈山會上，拈花示衆。是時衆皆默然，惟迦葉尊者，破顏微笑。世尊云，吾有正法眼藏，涅槃妙心，微妙法門，不立文字，教外別傳，拈麈尾授迦葉。無言對，黃面瞿曇，傍若無人，不復爲說，慈羊頭黃狗肉，將謂多少奇特，只如當時大眾都笑，正法眼藏作麼生傳，設使迦葉不笑，正法眼藏又作麼生傳。若道正法眼藏有傳授，黃面老翁語語關關，若道正法眼藏無傳授，爲甚麼獨許迦葉。箇語，拈起花來，尾巴已露，迦葉破顏，人天四指。

*세존(世尊)께서 영산(靈山)의 법상에 오르시어 꽃을 하나를 들어 대중에게 보이시자 다들 의아하게 좌우를 둘러보는데 오직 한 사람, 가섭(迦葉)존자만이 조용히 미소하셨다.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내게 '정법안장(正法眼藏)', 열반묘심(涅槃妙心), 미묘법문(微妙法門), 불립문자(不立文字), 교외별전(教外別傳)'이 있으니 이를 마하가섭(摩訶迦葉)에게 부촉하노라."

*나 해가 말한다. 황금빛 얼굴의 고타마는 안하무인으로 사람을 바보로 만들고, 거창하게 내걸더니 겨우 꽃 한송이. 기특이 아주 하지. 그러나 그때 대중 모두가 웃기라도 했으면 정법안장을 어찌 전했을 것이며, 또 혹 가섭이 웃지 않았더라면 정법안장을 어떻게 전했을까. 정법안장이 전해지는 것

각도에서 소묘하고 있다. 1) 정법안장: 세존의 말씀, 그 판사천 장광설의 공간을 삼장이라 한다. 이에 대해 선은 삼장에는 없는, 그러나 '진정한 진정한 지혜의 눈'이 담긴 공간(正法眼藏)이다. 2) 열반묘심: 생사를 떠난 자리, 모든 이분법적 분열이 사라진 자리가 열반이다. 이 말은 욕망의 타는 불이 꺼졌다는 산스크리트어 니르바나에서 왔다. 그렇다고 이곳을 의지도 정서도 없는 막막한 정신의 풍경으로 오해해서는 안되는데, 돌에 피는 꽃처럼, 그렇게 욕망이 차단된 자리에 절대의 움직임이 피어나기 시작한다. 진정한 신비(妙)가 그곳에 있다. 3) 실상무상: <금강경>에 이룬 말이 있다. "우리가 보고 듣는 바대로의 표상(相)이 진정한 실체가 아님을 통찰한다면 그때 여래(如來)를 볼 것이다." 여래가 바로 실상(實相)이다. 그것은 지혜의 눈으로 세계를 바라 보는 일이다. 우리에게 일반적 인식은 욕망과 집착에 오염되어 있기 마련인데 여기서서 그같은 징표가 없다. 그래서 무상(無相)이다. 4) 미묘법문: 진리가 미묘하고 신비적이다. 혹은 너무 가까이 있어서 포착하기 어렵다. 상대적 인식의 표정을 살펴보고 있는 소식을 알려주는게 또 얼마나 어렵겠는가. 미묘한

반이다. 이 말은 욕망의 타는 불이 꺼졌다는 산스크리트어 니르바나에서 왔다. 그렇다고 이곳을 의지도 정서도 없는 막막한 정신의 풍경으로 오해해서는 안되는데, 돌에 피는 꽃처럼, 그렇게 욕망이 차단된 자리에 절대의 움직임이 피어나기 시작한다. 진정한 신비(妙)가 그곳에 있다. 3) 실상무상: <금강경>에 이룬 말이 있다. "우리가 보고 듣는 바대로의 표상(相)이 진정한 실체가 아님을 통찰한다면 그때 여래(如來)를 볼 것이다." 여래가 바로 실상(實相)이다. 그것은 지혜의 눈으로 세계를 바라 보는 일이다. 우리에게 일반적 인식은 욕망과 집착에 오염되어 있기 마련인데 여기서서 그같은 징표가 없다. 그래서 무상(無相)이다. 4) 미묘법문: 진리가 미묘하고 신비적이다. 혹은 너무 가까이 있어서 포착하기 어렵다. 상대적 인식의 표정을 살펴보고 있는 소식을 알려주는게 또 얼마나 어렵겠는가. 미묘한



"가섭, 말씀아닌 말씀 들었네"

꽃 한송이 소식 '정법안장 교외별전'

이러한 얼굴 누런 늙은이는 순진한 사람들을 속인 것이 되고, 또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면 어째서 유독 가섭에게만 허여했는가. *송하여 가로되, 꽃을 들어 올렸을 때, 이미 꼬리는 드러난 것. 가섭이 미소짓고 인천(人天)은 어쩔 줄 몰라.

그동안 세존께서는 참 많은 말씀을 하셨다. 최초의 법륜에서부터 소승, 대승, 밀교, 정토 교까지. 그런데 선은 이렇게 잘라 말한다. "진짜 세존의 가르침은 그곳에 있지 않고, 바로 이 회상(會上)에서 무언(無言)으로 전해진다." 이 공안은 선의 법문이 불교의 전통 권위를 이어받고 있다는 변호, 혹은 자부심을 보여준다.

이 말씀 아닌 말씀을 전해 들은 사람은 다름 아닌 가섭(迦葉)이었다. 지혜(智慧)가 뛰어난 사리불(舍利佛), 신통이 넘달랐다는 목건련(目健連)을 제치고 두타제일(頭陀第一)의 가섭이 세존의 정법안(正法眼)을 넘겨받았다는 것이다. 가섭이 세존의 법문이 불교의 전통 권위를 이어받고 있다는 변호, 혹은 자부심을 보여준다.

이 말씀 아닌 말씀을 전해 들은 사람은 다름 아닌 가섭(迦葉)이었다. 지혜(智慧)가 뛰어난 사리불(舍利佛), 신통이 넘달랐다는 목건련(目健連)을 제치고 두타제일(頭陀第一)의 가섭이 세존의 정법안(正法眼)을 넘겨받았다는 것이다. 가섭이 세존의 법문이 불교의 전통 권위를 이어받고 있다는 변호, 혹은 자부심을 보여준다.

법을 설하는 - 아니 설할 때 이미 상대적 인식의 표정으로 떨어지므로, 설 아닌 설의 - 방편은 당연히 미끄러울 것이다. 그래서 미묘법문이다. 5) 불립문자: "꽃 한송이를 들었다." 이 소식을 알렸는가. 선의 법문은 언어를 통하지 않은 단순하고 직접적인 행동이 주조이다. 마치 못해 언어를 통한다 해도 역설과 반의, 모순과 미로 등을 통해 일상적 인식을 두드리는 충격요법을 통해 그 너머의 진실을 알린다. 6) 교외별전: 정법안장과 짝을 이루고 있다. 교(教)란 삼장의 가르침을 가리킨다. 이 가르침 밖에 따르면이 전한 그 소식이 바로 교외별전이다. 불립문자와 함께 선의 특징을 단적으로 일러주는 말이다.

5) 불립문자: "꽃 한송이를 들었다." 이 소식을 알렸는가. 선의 법문은 언어를 통하지 않은 단순하고 직접적인 행동이 주조이다. 마치 못해 언어를 통한다 해도 역설과 반의, 모순과 미로 등을 통해 일상적 인식을 두드리는 충격요법을 통해 그 너머의 진실을 알린다. 6) 교외별전: 정법안장과 짝을 이루고 있다. 교(教)란 삼장의 가르침을 가리킨다. 이 가르침 밖에 따르면이 전한 그 소식이 바로 교외별전이다. 불립문자와 함께 선의 특징을 단적으로 일러주는 말이다.

6) 교외별전: 정법안장과 짝을 이루고 있다. 교(教)란 삼장의 가르침을 가리킨다. 이 가르침 밖에 따르면이 전한 그 소식이 바로 교외별전이다. 불립문자와 함께 선의 특징을 단적으로 일러주는 말이다.

열반의 묘심은 일상적 인식의 징표를 넘어선다고 했다. 그러나 전할 수도 없고 전해받을 수도 없는 물건이다. 그런데 웬 양두구육, "양머리를 내걸고 개고기를 파시나." 무문은 말한다. 꽃 한송이도 일상적 징표의 고프머리에 매달려 있다. 거창하게 내걸더니 고작 꽃 한송이를 내미시나. 그 어색한 꽃 한송이는 대자비(大慈悲)의 기특한 일이지만 공극은 그런 기특한 방편을 넘어서 있다. 고마움과 어긋장의 복합, 무문의 절묘한 역량을 여기서 읽는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法數로 배우는 불교

<19>

어느 음식점 열었다. 주인은 오십중반쯤 되는 아주머니였다. 앉아 있는 입구의 벽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목판이 걸려있는 것으로 보아 기독교인이 분명했다. 음식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라 예사롭게 여기고 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맞은편 벽에 족자 한 폭이 문득 눈에 띄었다. '상락아'

부처님 열반이 지닌 네가지 덕 마음으로 깨닫고 이루는 세계

정(常樂我淨)이라고 쓴 불경 구절이었다. 의아스러운 생각이 들어 주인을 불러 물었다. 입구의 글자를 보아 예수님을 믿으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불경 구절을 다 걸어놓았냐는 질문이었다. 그러자 주인은 깜짝 놀라서 그게 불경 말씀이나고 되묻는 것이었다. 자기는 너무 뜻이 좋아서 누가 주기에 걸어 놓았을 뿐, 그 내용이 불경에 나오는 줄을 몰랐다는 것이다. 그리고는 자신은 예수를 믿지만 항상 불교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많다고 좀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요구를

하였다. 그래서 주인에게 "상락아 정'은 <열반경>이라는 불경 가운데 나오는 말씀으로 불교의 이상세계인 열반이 지닌 네 가지 큰 덕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상덕'은 부처님이 누리시는 열반의 경지는 항상하는 뜻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무상한 것으로 생겨난 것은 반드시 없어지고 태어난 것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무

리들이 사는 중생계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받는 유한의 세계입니다. 하지만 열반의 부처님 세계는 나고 죽음을 벗어나 영인 그 자체입니다. 무상이 아니라 항상이며 유한이 아니라 무한입니다.

둘째로 '락덕'은 열반의 경지란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한 세계라는 뜻입니다. 세상은 온갖 고통으로 찌꺼기 있어 걸어 놓았을 뿐, 그 내용이 불경에 나오는 줄을 몰랐다는 것이다. 그리고는 자신은 예수를 믿지만 항상 불교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많다고 좀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요구를

셋째로 '이덕'은 열반의 경지야말로 참나 존재하는 세계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몸은 허망하기 그지없습니다. 바다에서 일어난 한 점의 거품처럼 있는 것 같지만 허깨비 같습니다. 마치 꾸어다 쓴 물건과도 같아서 이 몸은 언젠가는 땅과 물과 불과 바람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중생들은 이러한 망념된 몸에 진실한 자기가 있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환상일 뿐입니다. 열반의 몸은 이런 환상과 같은 육체적 자아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벗어났을 때 나타납니다. 열반에 의해 얻어진 참나는 지혜와 자비로 이루어진 자유자재 몸으로 형상을 벗어나 온 우주에 충만하여 걸림이 없습니다.

넷째로 '정덕'은 열반의 경지는 맑고 깨끗한 세계라는 뜻입니다. 중생계는 온갖 죄업과 악으로 물들어져 있습니다. 투쟁이 있고 증오가 있고 한서림이 있습니다. 아집과 욕망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러나 열반의 세계는 참으로 담연하고 청정합니다. 이곳에서는 모두가 평등하고 자랑스러워서 대립할 것도 없고 미워할 것도 없습니다. 구름처럼 없는 하늘처럼, 투명하고 뚜렷한 곳, 그 곳이 바로 부처님의 열반경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불교와 수학

12

불교와 무한 ①

김용운

석가모니는 B.C. 566년에서 486년까지 생존한 역사적 인물이다. 그러나 그는 중생에게 해아릴 수 없는 먼 전생의 인연을 깨닫게 하고 오늘날의 나의 깨달음이 먼 미래에까지 세계가 불국토(불교적인 좋은 세상)가 되도록 하는 큰 가르침을 주고 있다.

<법화경>의 전생불, 미래불의 사상이 이 사실을 말하고 있다.

인간의 수명은 유한하다. 그러나 전생과 후생의 인연의 얽힘 속에 무한을 산다. 불교의 대오(大悟), 유교의 안심입명(安心立命, 이 세상에 태어난 의미를 깨닫고 마음의 편안함을 얻는다)은 한결같이 유한의 인간이 무한의 생명 흐름 속에서 자신의 존재 이유를 깨닫게 됨을 말한다. 아무리 미세한 곤충도 무한의 생명 연쇄 속에 하나의 고리로써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무한을 의식하지 못한 채 순간 순간을 살아갈 뿐이다. '산다'는 것은 의식하는 일이다. 인간은 무한의 흐름 속에서 자신의 존재 의미를 의식하므로써 무한을 산다.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117

<화엄경>에서는 대담하게 '인간은 태아의 입자이다'라고 선언한다. 인간은 태양(생명의 원천)빛의 입자와 같이 생명의 씨를 안고, 저마다 그들의 마음속에 불성(佛性)을 지닌다.

불성이란 무한을 의식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유한의 생명을 무한 세계에 대응시킬 수 있는 지혜이다. 그러기에 악인은 없으며 중생(민중) 모두가 정진을 거듭하므로써 부처가 될 수 있다. 자성을 갖춘 인간은 직관적으로 무한을 엿볼 수 있다.

영국의 18세기 신비주의 시인인 블레이크(W. Blake)도 그 사실을 깨닫고 그의 시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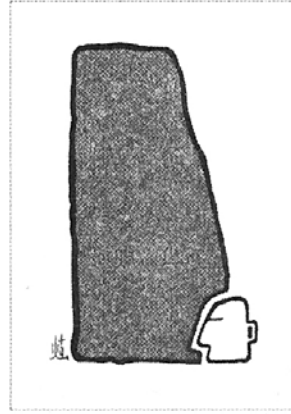
유한과 무한은 같다... '一即多 多即一'

순간은 영원 내포... 복제인간도 한 예

한 알의 모래알 속에서 세계를 보고 한 송이의 꽃에서 천국을 본다

손바닥의 무한은 일각에서부터 영겁(永劫)의 시간을 파악한다.

아무리 작은 한 알의 모래알도 세계의 구성 요소의 하나이다. 부분은 전체를 이루는 한 요인이다. 한 송이의 꽃을 피게 하는 인연의 고리를 다듬어 무거운 생명 의지를 느낀다.



'일중생(一衆生)에 광대한 여래(如來)의 지혜가 있다' '한순간에 영원이 내포된다' '일(一)에 세계해(世界海)가 들어 있다'

극미의 세계와 대우주, 한 순간과 영겁의 시간이 대응한다.

불교에는 이와 같이 열림 상식의 세계에서는 영동하다고 생각되는 말들이 많다. 유한과 무한의 같음은 분명히 상식에 벗어난다. 그러나 이 구절들은 분명히 현대 수학의 무한 논리와 일치하고 있다.

현대 수학은 '무한의 과학'이라고도 한다. 현대 수학의 부분과 전체의 같음을 말한다. 한편 불교에서는 이 사실을 '일즉다, 다즉일' (一即多, 多即一)로 표시한다.

불교가 마음의 무한성을 깨닫고 일찍부터 이 주제를 갖고 여러모로 씨름해 왔다면 현대 수학은 19세기 말 무한의 특성이 전체와 부분이 같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리고 현대 과학은 실제로 한 가지씩 그것이 사실임을 증명해 내고 있다.

클로닝(cloning, 복제 인간)도 그 한 예이다. 인간의 피부 세포 하나만 있으면, 나뭇가지들 심어 새 나무를 성장시키는 것처럼 똑같은 인간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돌아해보면 복제 인간의 가능성도 이미 '무한과 유한'의 일체성에서 감지되어 왔던 것이다. <한양대 수학과 명예교수>

최고의 신비로운 영약



보은의 선물
감동의 선물
최고의 건강선물
역시 산삼입니다.

홍천임업협동조합원으로 부터 공급받아 10~30년근 수량제한 한정판매!!

장뇌산삼

눈이 맑아지고 뇌의 기능을 좋게하며 인체 저항력을 강화시켜 면역기능과 자연치유력을 높여 줍니다.

장뇌산삼이란?

장뇌산삼은 산삼의 씨앗을 산삼이 자생할 수 있는 깊은 산중에 뿌려 자연 그대로의 상태에서 양생된 일명 山養山蔘입니다.



자연산삼에 버금가는 효능

"예로부터 신비의 영약으로 전해 내려온 산삼은 원기회복에 뛰어난 효과를 발휘하고 면역기능과 자연치유력을 높여주므로 고혈압, 당뇨, 간, 심장병, 암종 성인병에 좋습니다."

*1뿌리도 주문 배달이 가능하며 단체주문 및 선물용 다량 주문시 가격절충해서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동안 산삼과 인연을 맺고자 관심은 있으나 높은 가격 부담으로 접하지 못했던 분들에게는 연락주시면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공급 홍천임업협동조합원 생산품
자연산삼 별도 상담 환영

존경하옵는 불자님께

건강과 성불을 발원하옵고 가내 화평하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지친심신을 최상품 산삼으로 기력을 회복시켜 드리하고자 노력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홍천임업협동조합 검수품

장뇌산삼사업부

☎ (02)207-8387
(0346)591-3989

시중에서 장뇌산삼이 자연산삼으로 둔갑하여 수천만원대의 고가로 잘못 유통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전물량 홍천임업협동조합에서 인증서가 첨부되어 가짜로부터 보호하고 고객분들께서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